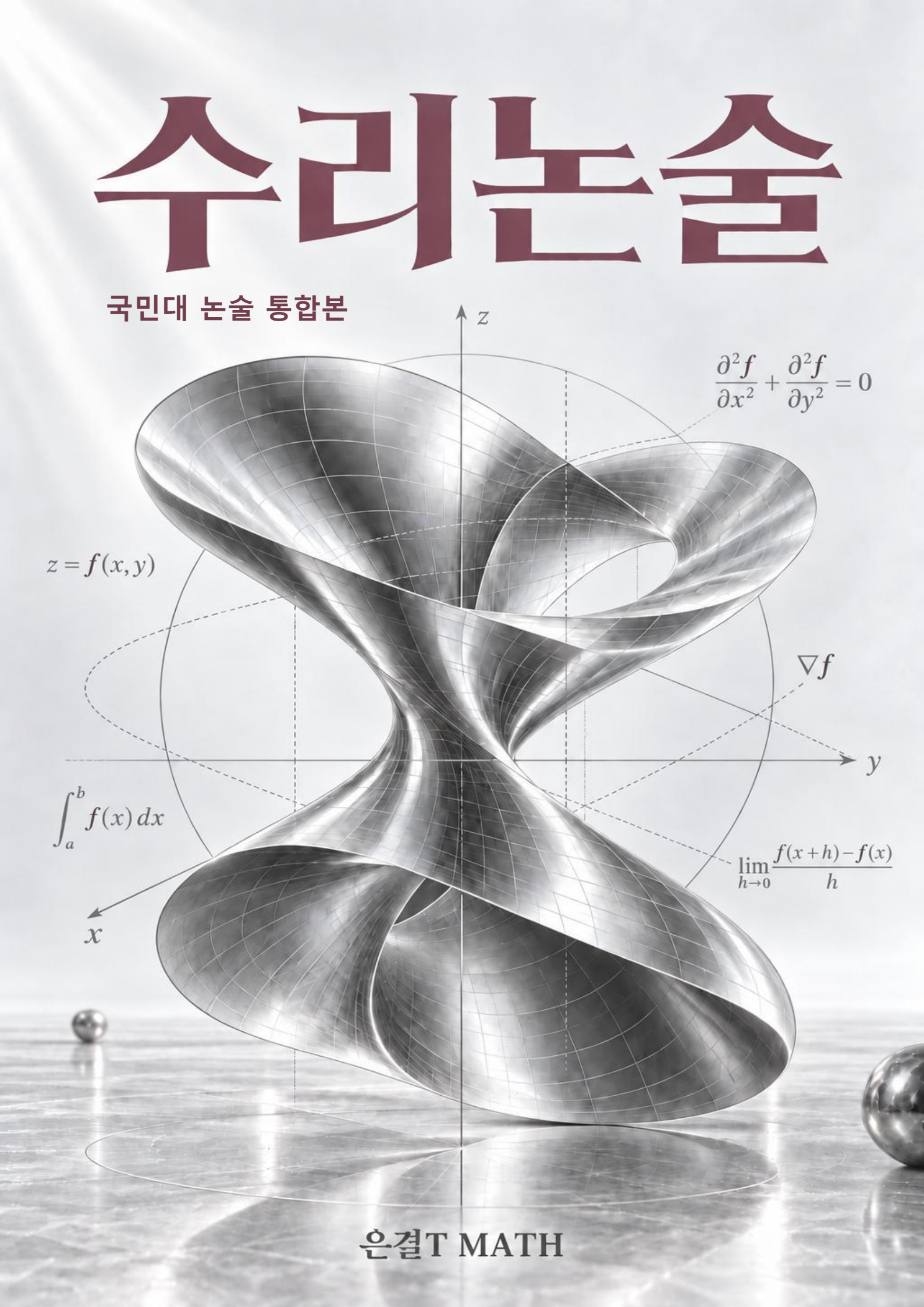
수리논술

국민대 논술 통합본



은결T MATH

국민대 약술형 논술 분석

2023~2027 학년도 자료 확인과 2026 학년도 실기출 분석

자연계 수학 중심 · 인문계와 국어 포함

자료 확인일 2026 년 11 월 22 일

먼저 알아둘 결론

국민대는 EBS 연계형 약술논술을 시행한다. 교과서와 수능특강·수능완성으로 개념과 독해력을 쌓고, 국민대 기출로 소문항의 연결 방식과 답안 작성 규칙을 익히는 준비가 적합하다. EBS 와 기출은 역할이 다르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

요청한 기간 중 현행 논술전형이 시행된 첫 학년도는 2026 학년도다. 2023~2025 학년도 논술 기출은 없으며, 2027 학년도 본시험은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이 분석서의 실기출 분석은 2026 학년도 전체 공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계 수험생에게 중요한 세 가지

수학은 수학·수학 Ⅰ·수학Ⅱ·미적분까지 준비한다. 미적분뿐 아니라 고 1 수학의 명제, 다항식, 경우의 수도 실제로 출제되었다. 국어도 20%를 차지하므로 함께 연습한다.

2027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르면 수학 답안지에는 풀이 과정을 작성하지 않는다. 연습할 때는 풀이를 설명하며 개념을 점검하되, 실전에서는 요구한 정답을 지정된 칸에 정확히 옮겨야 한다.

90 분 안에 10 개 대문항을 처리한다. 자연계 수학만 보아도 2026 학년도 분반별 소문항은 24 개·24 개·23 개였다. 대문항 수만 보고 시간이 넉넉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통합 차례

2026 학년도 공식 예상문제와 해설	18 쪽
EBS 연계 모의논술 개정 문제편	64 쪽
EBS 연계 모의논술 개정 해설편	138 쪽

2027 학년도 시험 구조와 범위

항목	인문계	자연계
고사시간	90 분	90 분
국어	8 문항 · 80%	2 문항 · 20%
수학	2 문항 · 20%	8 문항 · 80%
국어 범위	국어 · 문학 · 독서	국어 · 문학 · 독서
수학 범위	수학 · 수학Ⅰ · 수학Ⅱ	수학 · 수학Ⅰ · 수학Ⅱ · 미적분
답안 형식	국어 단답형 또는 단문형 수학 단답형	국어 단답형 또는 단문형 수학 단답형

전형과 학습의 연결

전형은 논술 성적 100%를 반영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2 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가 기준이다. 인문은 탐구 상위 1 과목을, 자연은 과학탐구 상위 1 과목을 반영한다. 자연계에서 사탐으로 탐구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 한국사는 최저에 반영하지 않지만 응시는 필수다.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별도 출제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고 1 수학에 들어 있는 경우의 수·조합은 범위에 포함되며 실제 출제되었다. 과목 이름과 그 안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동점자 처리에서는 인문계는 국어 총점, 자연계는 수학 총점을 먼저 본다. 주력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나머지 과목의 기본 점수를 버리지 않는 편이 합리적이다.

인문계열 실전 3 회

90 분 · 100 점 · 국어 8 문항 · 수학 2 문항

국어는 발문에 제시된 답안 조건을 지키고, 수학은 정답만 쓰시오.

문제 1 11 점

(가) 전시장에 들어서자 벽에 세 줄의 빛이 비친다. 관람자는 곧 '작품에 하얀 선이 세 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빛이 일정한 모양으로 보인 일은 지각 경험이고, 작품에 특정한 성질이 있다고 받아들인 일은 지각적 믿음의 형성이다. 두 일은 보통 함께 일어나므로 서로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작품에 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맞은편 창의 빛이 비친 것이라면,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경험에 따른 믿음이 참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여기서 정당화는 어떤 믿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정당화가 항상 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조명에서 여러 방향으로 확인한 결과 선이 작품에 그려진 것처럼 보였다면 관람자는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다만 그가 이미 조명의 방향에 따라 선이 생겼다 사라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형편이 달라진다.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와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알려 주는 정보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판단이 참인지, 그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를 갖고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하여 하나의 관찰이 주는 도움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보이는 선이 세 줄인지 알아볼 때는 관람자가 보는 위치를 바꾸어 가며 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이 어떤 재료에 남아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 재료를 배경과 분리해 두고도 같은 모습이 관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검사 전에 작품의 투명 덮개에 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보는 위치를 바꾸어 여러 차례 세었다는 사실만으로 덮개 안쪽 작품의 성질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관찰의 반복은 첫 판단을 안정되게 해 줄 수 있지만, 겉모습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교를 대신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

(나)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이 지각적 믿음을 뒷받침하려면 경험의 관련 내용에 개념이 관여해야 한다고 본다. 세 줄로 보이는 경험을 '세 줄'이라는 믿음의 이유로 쓰려면, 보는 사람이 셋이라는 수와 줄이라는 형식을 해당 경험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경험을 말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경험을 어떤 판단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비개념주의는 세부적인 차이를 알아보는 지각에 항상 그와 같은 개념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같은 빛을 본 두 사람이 두 색의 차이를 구별하면서도 어느 쪽이 무슨 색인지 이름을 모를 수 있다. 비개념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이름을 모르거나 그 성질을 분류할 개념이 없더라도 지각된 차이 자체가 '두 색이 다르다'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두 입장이 다투는 것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경험에 주어진 차이가 언제 판단의 이유가 되는가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날 다시 보았을 때도 같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자. 개념주의자는 그 사람이 알아본 차이를 '두 색이 다르다'는 일반적인 구별로 파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이다. 비개념주의자는 그런 구별을 명료하게 적용하기 전에도 보는 경험이 제공한 내용이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입장 모두 경험 밖에서 알게 된 사정에 따라 처음 판단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

<보기>

> 수리 기사는 두 천 조각에서 미세한 색 차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해당 색의 분류를 배운 적은 없다. 조각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 같은 조명 아래에서 다시 보여 주어도 그는 색 차이를 구별했다. 며칠 뒤 시험 담당자는 두 조각이 같은 천에서 잘렸으며, 시험 전 한 조각에만 청색 필름을 덧댔다는 기록을 공개했다.

(1) "경험의 내용에 관련 개념이 관여해야 그 경험이 믿음의 이유가 된다"는 입장의 명칭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2.5 점]

(2) <보기>의 기사가 지각한 차이에 관련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도 그 경험을 믿음의 근거로 인정하는 입장과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3.5 점]

(3) 기사의 새 믿음이 "필름을 제거한 두 조각의 원래 색도 다르다"일 때, 기록 공개 뒤에는 이 믿음을 앞선 관찰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35~65 자로 쓰시오. [5 점]

자연계열 실전 3 회

90 분 · 100 점 · 수학 8 문항 · 국어 2 문항

국어는 발문에 제시된 답안 조건을 지키고, 수학은 정답만 쓰시오.

문제 1 12 점

실수 전체에서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x) = \int_0^{x^2-1} (t^2 - 1)dt$$

(1) $F'(x)$를 x의 다항식으로 나타내시오. [3.2 점]

(2) F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순서대로 구하시오. [4 점]

(3) $F(x) \le F(0)$을 만족하는 모든 x의 범위를 구하시오. [4.8 점]

문제 2 12 점

자연수 n에 대하여 $a_n = \log_2 \frac{n+2}{n+1}$, $S_n = \sum_{k=1}^{n} a_k$라 하자. 자연로그는 ln으로 표시한다.

(1) S_n을 n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3 점]

(2) $\lim_{n\to\infty} na_n$의 값을 구하시오. [4 점]

(3) $\sum_{n=1}^{\infty} 2^{-(S_n+S_{n+1})}$의 값을 구하시오. [5 점]

인문계열 실전 3 회

국어 8 문항 · 수학 2 문항 · 100 점

문제 1 11 점

지각 경험과 믿음의 정당화

소문항	정답 또는 예시 답안	배점
(1)	개념주의	2.5 점
(2)	비개념주의는 색의 분류 개념이 없어도 지각된 차이 자체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5 점
(3)	관찰한 색 차이는 필름 때문에 생길 수 있어 두 조각의 원래 색이 다르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5 점

풀이와 채점 기준

(1) 관련 개념을 경험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문장이 (나)의 첫 단락에 나온다.

채점 2.5 점 요구한 답을 정확히 적으면 배점 전부

(2) 비개념주의에서는 해당 성질을 분류할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어도 두 조각이 다르게 보인 경험이 차이를 믿을 이유가 된다.

채점 1.5 점 비개념주의를 선택 / 2 점 개념 없이도 지각된 차이가 근거가 됨을 설명

(3) 관찰은 필름이 붙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조각의 자리를 바꾸어도 필름은 같은 조각에 붙어 있었다. 색이 다르게 보였다는 보고는 유지되지만 그 차이를 천 자체의 차이로 돌릴 이유가 약해진다.

채점 2 점 필름이 색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 / 2 점 관찰과 천의 원래 색 차이를 구별 / 1 점 35~65 자

은결 T 추가 설명

"그때 다르게 보였다"는 경험의 보고와 "재료 자체가 달랐다"는 원인 판단을 나누어 읽는다. 추가 정보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두 번째 판단이다.

자연계열 실전 3 회

수학 8 문항 · 국어 2 문항 · 100 점

문제 1 12 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도함수와 극값

소문항	정답 또는 예시 답안	배점
(1)	$2x^3(x^2-2)$	3.2 점
(2)	$\frac{2}{3},\ -\frac{2}{3}$	4 점
(3)	$-\sqrt{3} \le x \le \sqrt{3}$	4.8 점

풀이와 채점 기준

(1) 적분의 위끝에 t^2-1을 대입한 값에 위끝의 도함수 $2x$를 곱한다. $2x((x^2-1)^2-1) = 2x^3(x^2-2)$이다.

채점 3.2 점 요구한 답을 정확히 적으면 배점 전부

(2) F'은 $-\sqrt{2}$, 0, $\sqrt{2}$를 경계로 음, 양, 음, 양이다. 따라서 $F(0)=\frac{2}{3}$은 극댓값, 서로 같은 $F(-\sqrt{2})$와 $F(\sqrt{2})$의 값 $-\frac{2}{3}$은 극솟값이다.

채점 2 점 극댓값 2/3 / 2 점 극솟값 −2/3

(3) $v=x^2-1$로 놓으면 $3(F(x)-F(0)) = v^3-3v-2 = (v-2)(v+1)^2$이다. 이는 $(x^2-3)x^4$이므로 $x=0$을 포함하여 $-\sqrt{3} \le x \le \sqrt{3}$이다.

채점 4.8 점 요구한 답을 정확히 적으면 배점 전부

은결 T 추가 설명

위끝의 도함수를 빠뜨리면 $x=0$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놓친다. 마지막 부등식에서는 $x^4=0$인 경우도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